

- 주요 뉴스: 미국 트럼프, 중국과의 협상 완료,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예상치 하회
 - 미국 재무장관, 감세법안에 따른 부채 확대 여부는 불분명, 5월 예산적자는 감소
 - ECB 주요 인사,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높은 편 강압적 무역정책을 반대
 - 일본 총리, 미국과의 협상은 계속해서 진전, 5월 기업물가는 상승세 다소 둔화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예상치 하회한 5월 소비자물가, 美中 무역협상 완료 등이 반영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美中 무역협상 타결에도 기술주 중심 차익 매물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에너지 관련주 약세 등으로 0.3%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증가 등을 반영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5%, 0.2%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5월 소비자물가의 예상치 하회 등으로 하락
독일은 美中 무역협상 기대 여파 등으로 1bp 상승

※ 뉴욕 1M NDF 증가 1368.2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71.0원, 0.3% 하락). 한국 CDS 약보합

		6/11일	6/10일	전일대비			6/11일	6/10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022.2	6,038.8	-0.27%	국채 금리 10y	미국	4.42%	4.47%	-5bp
	유럽	551.64	553.12	-0.27%		독일	2.54%	2.52%	+1bp
	중국	3,402.3	3,384.8	+0.52%		영국	4.55%	4.54%	+1bp
	일본	38,421	38,212	+0.55%	CDS 5y	한국	27bp	27bp	-0bp
	한국	2,907.0	2,871.9	+1.23%		중국	43bp	45bp	-2bp
환율	달러지수	98.63	99.10	-0.47%	위험 지표	EMBI+	-	367	-
	유로화	1.1487	1.1425	+0.54%		VIX	17.26	16.95	+1.83%
	엔화	144.56	144.87	+0.21%		WTI유	68.15	64.98	+4.88%
	위안화	7.1903	7.1878	-0.03%	원자재	구리	481.5	490.0	-1.74%
	원화	1,375.0	1,364.3	-0.78%		금	3,355.1	3,323.7	+0.95%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트럼프, 중국과의 협상 완료.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예상치 하회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 이후 필요한 모든 희토류는 미국에 선제적으로 공급될 것이며, 중국 학생들의 미국 대학 유학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에 필요한 것을 제공할 방침이며, 이번 합의는 중국 시진핑 주석과 자신의 최종 승인만 남았다고 설명
- 미국이 구체적으로 중국에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언급되지 않았는데, 시장에서는 AI 반도체 및 IT 관련 첨단 기술의 수출 통제에서 일부 양보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5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천연
- 지난 회의에서 양국은 서로에 대해 각각 30%, 10% 관세 부과에 합의했는데, 이번에는 미국의 對中 관세가 25%p 인상. 백악관은 기본관세 10%, 펜타닐 관세 20%, 이전부터 존재했던 25%를 더해 55%의 관세가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개방을 위해 중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부연
-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양국의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며, 중국은 자국의 경제 문제를 수출이 아닌 내수 촉진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 아울러 선의로 협상에 임하는 국가에는 상호관세를 추가로 유예할 방침이라고 발언. 또한, 미국과 멕시코는 철강 제품에 대한 50% 관세 폐지 합의에 근접(Bloomberg)
- 한편,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연간 상승률은 2.4%로 전월(2.3%) 대비 올랐으나 예상치(2.5%) 하회. 월간 상승률은 0.1%로 전월(0.2%) 및 예상치(0.2%) 대비 낮은 수준. 근원 CPI는 연간 상승률이 2.8%로 전월(2.8%) 대비 보합 및 예상치(2.9%) 하회 기록했고, 월간 상승률(0.1%)은 전월(0.2%) 및 예상치(0.3%) 모두 하회
- 항목별로 에너지, 신차, 중고차 가격이 내린 반면, 의료 및 식품 가격은 상승.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그 동안 재고를 늘려 관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아직 본격적으로 전가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재고가 감소하고 고율의 관세가 지속되면 주요 상품의 가격 상승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Fitch)
- 다만 일부에서는 관세 인상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 피력. 이를 감안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우려만큼 증폭되지 않고, 이에 연준의 금리인하도 다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Wells Fargo)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재무장관, 감세법안에 따른 부채 확대 여부는 불분명. 5월 예산적자는 감소

- 베센트 장관은 상원에서 계류 중인 감세법안이 연방정부의 부채를 늘릴 것인지 확실하지 않으며, 적어도 금년까지 재정 궤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 오히려 수천억 달러 규모의 법인세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 한편, 5월 예산적자(-3160억달러)는 전년 동월 대비 310억달러 감소.
-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하여 자신은 재무장관으로 남기를 원한다고 발언.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 폴 튜더 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매우 비둘기파적 성향의 인사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

■ G7 정상회의, 희토류 脫중국 로드맵 마련할 방침. 여타국의 참여도 독려할 전망

- 일본 주요 매체에 따르면, 15~17일 열릴 G7 정상회의에서 핵심 광물 관련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합의할 전망. 또한 G7 이외의 국가들에게도 이러한 계획에 동참하도록 요청할 것으로 관측

■ ECB 주요 인사,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높은 편. 강압적 무역정책을 반대

- 카자크스 위원은 인플레이션을 목표(연율 2%)까지 확실히 낮추기 위해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ECB에 따르면, 작년 4/4분기 임금 상승률은 1.7%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또한 금리인하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라가르드 총재는 강압적 무역정책이 글로벌 무역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다고 지적

■ 일본 총리, 미국과의 협상은 계속해서 진전. 5월 기업물가는 상승세 다소 둔화

- 이시바 총리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분명히 진전이 있다고 강조. 다만 최종 결정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이 있다고 부연. 한편, 5월 기업물가는 전년동월비 3.2% 올라 전월(4.1%) 대비 상승세 둔화. 이번 결과는 작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이나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6/12 현지시각 기준)

- 미국 5월 생산자물가지수, 6월 1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20년대 미국 증시, 1980년대와 1990년대 강세장 모습 반복할 가능성 - Financial Times
(Investing naysayers have let gloom override judgment under Donald Trump)
 - 전문가들은 관세의 여파,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미국 예외주의 후퇴, 채권시장 붕괴 등 경제 관련 부정적 요인 거론. 그러나, S&P500지수는 4월 저점 대비 20% 올랐고, 대표 기술 기업인 Magnificent7의 주가는 33% 상승. 일부 증시 회의론은 여전하지만, 1980~90년대의 강세장 특성을 참고하면 현재 증시를 이해하는데 도움
 - 첫째, 1980년대 기업 친화적인 레이건 대통령의 저세울 및 규제완화 정책과 플라자 합의로 인한 달러화 약세는 현재 상황과 유사. 둘째, 1990년대 골디락스 스타일의 인터넷 혁명은 AI시대의 미래와 비슷할 가능성. 셋째, 1980~1990년대 후반 20년간의 디스인플레이션 여건은 강세장의 토대를 제공
- 美中 무역 합의, 단기적 갈등 완화에 국한. 근본적 해결 인식은 오판일 소지 - 블룸버그
(The US and China Are Talking Again. Don't Call It a Reset)
 - 미국과 중국은 무역긴장 완화를 위한 원칙적인 합의의 틀에 도달했다고 발표. 하지만, 양국은 지난 달 일시적 관세 유예 합의 이후 불과 며칠 만에 상대방이 이를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심화. 이에 이번 합의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
 - 협상 관련하여 트럼프는 경제적 영향을, 시진핑은 정치적 타격 우려를 강조(APAC). 이에 미국은 중국이 강대국임을 인정하고 존중을 원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 중국도 트럼프 체면이 유지되는 선에서의 타협이 요구. 양국 관계에서 이와 같은 인식 변화가 없다면 위태로운 휴전 상태는 지속될 우려
- 미국의 예상보다 양호한 인플레이션, 연준의 긴축 효과와 소비 둔화에 기인 - 블룸버그
(Why Is Inflation Defying Tariff Fears?)
 - 5월 근원 소비자물가는 대체로 시장 예상을 하회. 이는 트럼프 관세 정책이 시행된 지 5개월이 되었으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당초 우려보다 제한적임을 시사. 아울러 연준의 '22년~'24년 긴축정책 효과와 기업들이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가격 인상에 신중하기 때문. 또한 중국과의 무역협상 진전에 따른 불안이 완화된 점도 중요
 - 하지만, 관세가 인플레이션보다 소비 수요 위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은 경계할 사안. 수입 비중이 낮은 서비스 부문에서도 수요 약화 신호가 발생하기 시작. 이러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금년에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전망. 트럼프는 훌륭하게 연착륙을 유도하는 연준 파월 의장을 내년에 교체하려는 계획을 재고할 필요

■ 미국 공화당 예산안, 재정 안정을 위협하는 세 가지 리스크 내재 - 블룸버그

(Republican budget bill is a fiscal mirage)

- 공화당의 예산 조정안(OBBBA)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향후 10년간 재정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의회예산처는 OBBA로 부채비율이 '34년 117%(현재보다 20%p 높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낙관적 가정에 따른 추정. 실제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리스크 요인이 존재
- 첫째, '한시적' 감세는 결국 영구화될 가능성, 둘째, 관세 부과 및 이민 감소로 성장을 저하, 셋째, 금리 수준이 예상보다 높게 유지될 위험. 이를 모두 고려할 경우 '34년 부채비율은 135%까지 상승할 우려. 이에 의원들은 단기 측면의 정치적 이득보다 장기적 재정 안정을 고려한 정책을 우선시할 필요

■ 견조한 미국채 입찰 수요, 정부 재정 악화를 방치하는 위험 요인일 가능성 - 블룸버그

(The Bond Vigilantes Are Taking a Nap)

■ 미국 노동시장, 이민 단속 강화에 따른 외국인 노동력 감소 영향이 가시화 - WSJ

(Is the Immigration Crackdown Already Showing Up in the Labor Market?)

■ 이탈리아 국채의 위험 프리미엄 하락, 역내 여타국 대비 개선된 재정을 반영 - Reuters

(No longer the big outlier, Italy sees bond renaissance)

■ 중국 수출업체, 美中 무역 합의 불구 높은 관세율 등으로 어려움 지속 예상 - Reuters

(As US trade truce gets back on track, some Chinese exporters are 'slowly dy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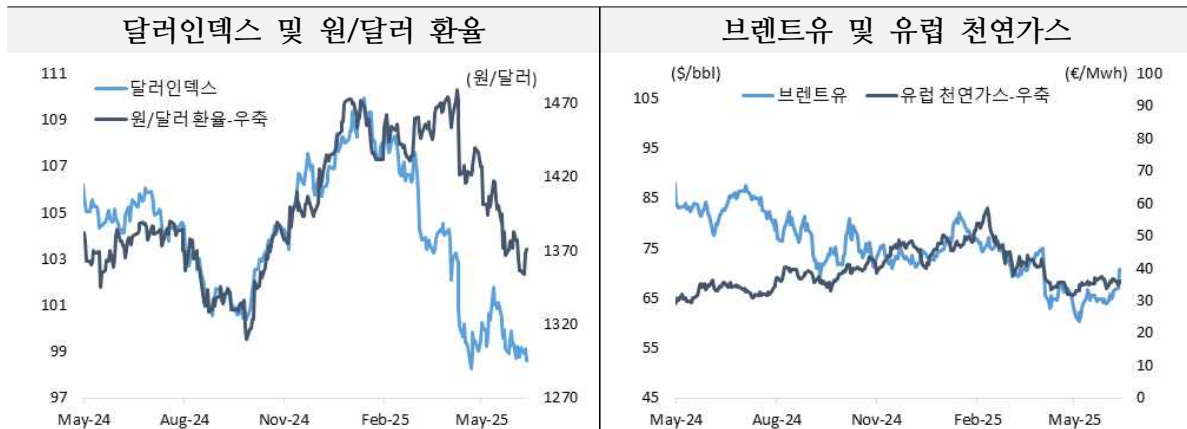
■ 중국, 향후 수년간 모든 협상에서 희토류 무기화 등의 전략 활용할 소지 - 블룸버그

(China Found World's Pain Point on Trade — and Will Use It Ag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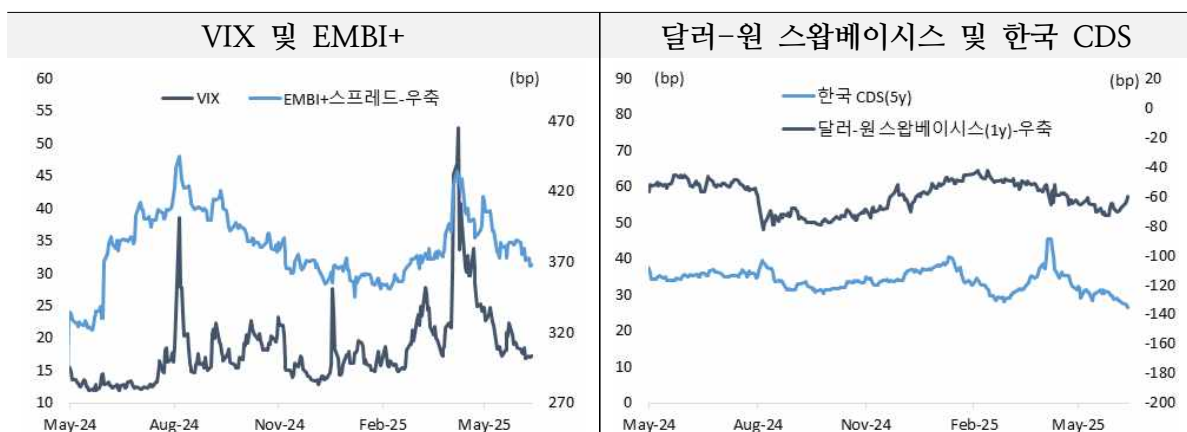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